

안경환의 '법과 문화'



인권과 성적소수자

그것제 12월 10일은 인권의 날이었다. 1948년 바로 이날 유엔 총회의 결의로 세계인권선언이 채택, 공표되었다.

다. 시민사회와 학계의 인권전문가 30명도 함께 위촉되었다. 수십 차례의 분과회의와 권역별 모임이 열렸다.

적, 성적지향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문화를 향유하고, 자신의 종교를 표명하고 실천하며,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들의 감각으로 세상을 보라. 거의 모든 대학에 성소수자 동아리가 공공연하게 활동한다. 학생들은 아무런 거부감 없이 이들의 존재를 받아들인다.

그런데 근년에 들어와서 인권의 날을 축하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때는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던 정부 차원의 기념행사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문제의 핵심은 '성적지향'에 기한 차별, 즉 동성애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 때문이었다. 서울시의 태도에 시민사회가 분노하고 성소수자가 시정을 점거했다.

성소수자의 차별 금지는 한 사회의 인권 수준을 가늠하는 잣대가 된 지 오래다. 서양의 역사는 오래도록 동성애에 대한 탄압과 차별로 얼룩졌다.

그런데도 시대를 거스르려는 우러스그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낡고 편협한 도그마의 포로가 되어 '사랑과 자비의 종교'를 무색케 하는 한심스런 작태다.

올해 세계인권날의 날은 초라하기를 넘어 비참하기까지 하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그렇다고 치자.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 지방자치단체의 모습은 어떤가?

인권 전문가, 박원순 시장이 '인권'보다 '정치'를 선택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공개 사과를 했지만 입장을 바꾸지는 않았다.

종교칼럼

크리스마스 트리의 의미



김성덕 회교교회 담임목사

스니다. 예전에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동산에 간 적이 있습니다. 마침 그곳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멋진 퍼레이드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명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또한 가난한 자들을 먹이는 일용할 양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주린 자들을 배부르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손님이 집에 오게 되면 절대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12월은 성탄의 계절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인 크리스마스는 전 세계인이 즐거워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나무에 여러 가지 장식을 달아 성탄을 기뻐하는 마음과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합니다.

집에서 아이들과 성탄목을 장식하려고 시장에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성탄 나무를 예쁘게 꾸며줄 다른 장식물들은 많았지만 정작 천사, 목자, 아기 예수님, 마구간과 같은 장식물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자리에 동방박사 같은 학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선물을 드리기도 했지만,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목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인 어머니들이 그렇습니다. 공휴일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배고픈 자들을 배부르게 해 주셨습니다.

기고

따뜻한 세상 만드는 '세가지 방문'



나경택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본부장

만들어 가고 있다. 서비스를 원하는 80세 이상 202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직원들이 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안부전화를 드리고 있다.

복하는 것이다. 자라다툼을 자제한 채 하나로 뭉치는 지혜가 평권의 생존전략인 셈이다. 평권은 체온을 나눔으로써 상대방의 체온을 자신의 것으로 삼는다.

자고 3년 전부터 매일 잔돈을 모으고 있다. 현재 800만 원 가깝게 모았다고 한다. 이 돈의 일부로 지난 10일 건강타운 직원들이 인근 덕남마을(이091) 할머니 집 노후한 전기시설과 부품을 교체해드렸다.

12월이다. 날들은 마지막 달이 되면 망년하다 송년회다 라는 명목으로 들떠 있는 때다. 그렇지만 우리한테는 한 해를 결산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소중한 달이 12월이다.

본능으로 사는 동물도 생존을 위해서 '더불어 살기'의 방법을 취한다. 한겨울이 되면 영하 60~70도가 보통인 남극에서 펭귄 무리는 극점으로 이동한다고 한다.

'입의 방문'은 현재 직원들이 하고 있는 직접 또는 전화로 안부를 묻고, 챙기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방문이다.

미국의 케네디공대 졸업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성공하는데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은 15% 밖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나머지 85%가 인간관계였다'고 한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說

아시아문화전당에 찬물 끼얹는 정부

정부여당이 특별법으로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조성사업의 발목을 잡더니 이번에는 느닷없이 아시아문화전당과 역할이 중첩되는 '아세안문화원'을 부산에 세우겠다고 밝혔다.

전시, 연구 등을 하는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내 핵심기구 아시아문화정보원의 역할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부산에 문화원이 세워지면 예산이 분산 지원될 것은 뻔하고, 한 술 더 떠 역자 발까지도 우려된다.

재래시장 화재 위험 알고도 방치해서야

광주지역 재래시장이 겨울철 화재에 극히 취약한데도 소방시설은 제대로 갖추지 않아 대형 화재의 우려가 높다고 한다.

는 500m 구간에는 고작 3대의 소화기만 설치돼 있고, 현재 소화기(22개)·소화전(4개소) 설치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상인들은 화재가 나지 않길만 바랄 뿐이라고 한다.

無等鼓

신문준에 계절이 되면 신문사도 바빠진다. 모집 사고(社告)를 준비하고 심사위원 선정 작업에 들어간다.

무 행복해하던 모습은 마음에 남아 있다. 아마도 심사위원의 격려를 받은 할아버지는 그후에도 생활 속 이야기와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소재로 많은 시를 쓰지 않았을까 싶다.

신춘문예

신춘문예의 역사는 100년에 달한다. 시초는 흔히 1914년 12월 10일 매일신보 1면에 실린 '신년문예모집' 사고로 알려져 있다.

의 이름이 올라 있다. 나이와 관계 없이 대한민국의 많은 '문청'들은 해마다 비수한 열병을 앓는다. 100년 세월 동안, 전국의 신문에 신춘문예 작품을 투고한 이들의 숫자는 가늠하기 힘들 터다.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address, phone numbers, and subscription information.